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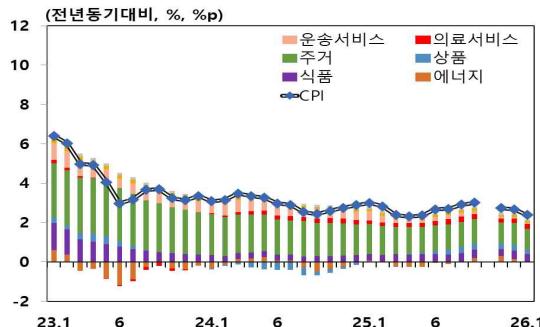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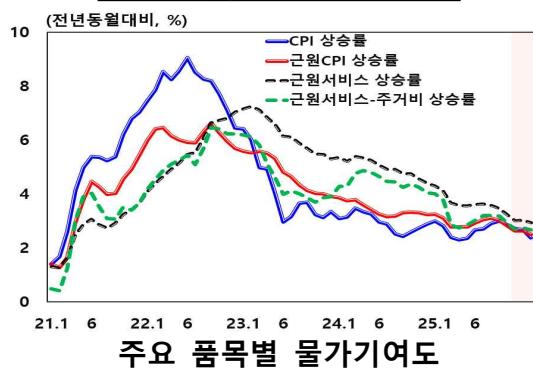
## 美 2026. 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금융시장 반응

## 1. 美 소비자물가 동향

- '26.1월 美 소비자물가(Headline CPI) 상승률은 2.4%(전년동월비, 시장예상치[2.5%] 하회)로 전월(2.7%)보다 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SA 기준)로도 전월(0.3%)보다 하락한 0.2%(시장예상치[0.3%] 하회)를 기록
  - 근원 소비자물가(Core CPI) 상승률은 전월(2.6%)보다 하락한 2.5%(전년동월비, 시장예상치 부합)를 기록하였으나, 전월대비(SA 기준)로는 0.3%(시장예상치 부합)로 전월(0.2%)보다 상승
- 구성항목별(전월비 기준)로 보면 서비스가격(0.3% → 0.4%)의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상품가격(0.0%)은 보합세를 지속하였으며, 식품가격(0.7% → 0.2%)의 상승세는 축소, 에너지가격(0.3% → -1.5%)은 하락 전환
  - 상품가격은 중고차(-0.9% → -1.8%) 가격의 하락세가 확대된 반면, 신차(0.0% → 0.1%)는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가구 및 가정용품(0.5% → 0.3%)은 상승세가 축소되고 의류(0.3% → 0.3%)는 전월 수준으로 상승
  - 서비스가격은 주거비(자가주거비 포함, 0.4% → 0.2%)와 의료서비스(0.4% → 0.3%)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운송서비스(0.4% → 1.4%)는 항공료(3.8% → 6.5%)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

\* 주거비 제외 근원서비스(Bloomberg supercore 지수) : 0.23% → 0.59%(전월대비)

Headline · Core CPI 상승률



구성항목별 CPI 상승(전월대비, 계절조정)

(%)	구성비중	25.10~11월 평균 <sup>1)</sup>	12월	26.1월
<b>Headline CPI</b>	100	0.1	0.3	0.2
■ 식품	13.7	0.0	0.7	0.2
■ 에너지	6.4	0.5	0.3	-1.5
휘발유	2.9	...	-0.3	-3.2
전기 및 가스	3.3	...	1.0	0.2
■ 근원CPI	79.9	0.1	0.2	0.3
· 상 품	19.2	0.0	0.0	0.0
(신 차)	3.8	0.2	0.0	0.1
(중고차)	2.8	0.5	-0.9	-1.8
· 서비스	60.7	0.1	0.3	0.4
(shelter)	35.6	0.1	0.4	0.2
<rent>	7.8	0.1	0.3	0.2
<OER>	26.2	0.1	0.3	0.2
(의료서비스)	6.9	0.0	0.4	0.3
(운송서비스)	6.3	-0.3	0.4	1.4
<항공료>	0.9	-3.4	3.8	6.5
<참고>근원서비스-주거 <sup>2)</sup>	-	...	0.2	0.6

주 : 1) 셋다운으로 인한 10~11월 전월대비 상승률 미발표로 인해 투자은행(MS, JPM, Citi, BoA)의 주정치를 사용

2) Bloomberg 산출 기준, 주거는 rent와 OER만 포함

자료 : 美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작성자 : 엄태균·전은희 과장

## 2. 금융시장 반응

- 시장참가자들은 연초 물가 급등 우려<sup>\*</sup>와 달리,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근원 CPI도 시장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아직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

\* 연초 기업들의 가격조정으로 1월 CPI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관세로 인해 가격조정폭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11월 중순 셧다운 종료로 격월조사 항목의 비교시점(11월)이 블프 세일기간에 집중된 점 등으로 시장에서는 이번 CPI에 상방리스크가 높다고 경계 해왔음(MS, DB, Bloomberg 등)

- 근원상품(전월비 0.0%)은 중고차 이외의 품목(0.16% → 0.36%) 오름폭이 확대<sup>\*</sup>되었으나 중고차(-0.9% → -1.8%) 하락<sup>\*\*</sup>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월에 이어 보합세 유지

\* 중고차를 제외한 근원상품 물가는 2023년 초 이후 가장 빠른 연속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초 가격 인상과 관세로 인한 상방 압력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음(GS)

\*\* 변동성이 큰 중고차가 근원 지수를 7bp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GS)

- 근원서비스(전월비 0.4%)는 주거비 상승폭 축소(0.4% → 0.2%)에도 불구하고 항공료(3.8% → 6.5%), 교육·통신서비스(-0.8% → 0.4%) 상승<sup>\*</sup>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

\* 변동성이 높은 항공료가 근원지수를 8bp 상승 견인(GS). 교육·통신서비스는 전달의 통신비 할인 기저 효과에 주로 기인(MS). 이번에 가속화된 非주거 서비스 항목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들이며, 그 외의 서비스 항목 대부분은 오름세가 매우 약했음(BoA, JPM)

- 다만 IB들은 PCE와 CPI간 구성항목별 가중치 차이<sup>\*</sup>를 반영하여 연준이 정책 판단시 선호하는 근원 PCE 물가 전망치는 상향조정(MS 0.38% → 0.49%, GS 0.30% → 0.40% 등)

\* PCE에서 CPI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진 전자제품이 큰 폭 상승하고, 더 낮은 가중치를 가진 중고차는 큰 폭 하락한 점을 반영

- 투자은행들은 1월 고용지표가 큰 폭 호조를 보인 만큼 금일 CPI 데이터가 연준의 단기 정책경로를 바꿀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지속된다면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를 보다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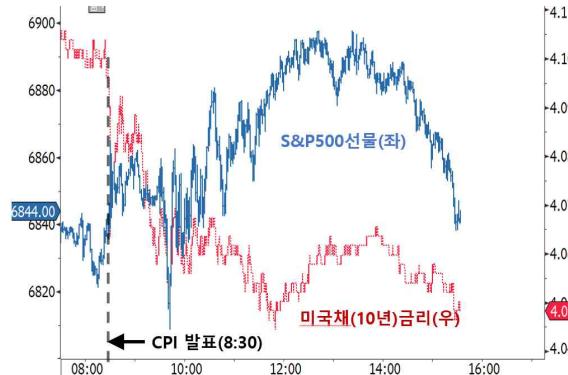
- 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연준의 상반기내 25bp 금리인하 기대(전일 80.7% → 88.0%) 및 연내 금리인하폭 기대(전일 59bp, 2.4회 → 64bp, 2.5회)는 확대

- CPI 발표 직후 헤드라인 CPI 상승률 예상치 하회(근원 CPI 상승률 예상치 부합)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 확대 등으로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 미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냄

다만 주가는 기술주 약세<sup>\*</sup> 등으로 장후반 상승폭을 축소

\* 엔비디아(-2.6%)는 최근 여타 빅테크 기업의 막대한 자본지출(CAPEX)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향후 자본지출 증가세 둔화로 인한 인프라 공급업체으로서의 벨류에이션 하락 가능성 및 향후 매출 증가세 둔화(26년 58%, 27년 28%) 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 애플(-2.2%)은 전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법 경고 영향 지속으로 주가가 하락

## 美 국채금리(10y) 및 주가(S&P500 선물) 일중 변동



## 주요 금융지표 동향

	2/12	2/13 <sup>1)</sup>	전일대비
금 리	미국채 2y	3.46	-0.05
	10y	4.10	-0.05
주 가	S&P 500	6,832.8	+0.1%
	Dow	49,452.0	+0.1%
	DXY	96.93	-0.1%
	NDF,KRW/USD	1,440.7	+0.1%

주: 1) 뉴욕 16:30 기준

### <주요 투자은행 등 코멘트>

- (Bank of America) 이번 CPI는 대체로 예상에 부합했음. 헤드라인 CPI는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했으며, 근원 CPI도 당초 1월 효과로 상방 서프라이즈 경계감이 컸으나 예상치보다 약하게 나타났음. 근원상품은 중고차를 제외하면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 $0.16\% \rightarrow 0.36\%$ )되었으나, 예상외로 중고차 가격 급락(-1.8%)이 이를 상쇄하면서 보합에 머물렀음. 근원서비스는 항공료(6.5%), 기타 개인서비스(1.6%), 교육·통신서비스(0.4%)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큰 폭 상승했으나 주거비는 둔화되었음. 이번에 가속화된 非주거 서비스 항목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 이 낮은 항목들이며, 신규 임대료 상승률의 지속적인 약세, 임금상승률 둔화 등은 향후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이 제한될 것임을 시사. 전반적으로 이번 데이터는 판도를 바꿀만한 게임체인저가 아니었으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연준은 여전히 금리인하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연준의 정책경로는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지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Citi) 1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예상에 부합했음. 상품물가는 중고차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약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관세 전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는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음. 서비스물가는 최근 몇 달보다 강했으나, 이는 1~2월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가격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작고 상승세도 덜 광범위했음. 무엇보다도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금년중 연준의 75bp 금리인하(4, 7, 9월) 전망을 유지함
- (MS) 근원 CPI 예상치 하회는 임대료 둔화 및 중고차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했음. 중고차를 제외한 근원상품에서는 관세 전가가 계속되었으며, 주거비 제외 근원서비스는 0.6%로 강하게 상승했음. 전문서비스 등 주거비 이외의 서비스 가격이 대부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점을 반영해 1월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의 0.38%에서 0.49%로 상향조정함
- (GS) 1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0% 상승해 예상에 부합했으며,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2.50%로 하락했음. 변동성이 큰 중고차가 근원 지수를 7bp 끌어내린 반면, 항공료는 근원 지수를 8bp 끌어올렸음. 중고차를 제외한 근원상품 물가는 2023년 초 이후 가장 빠른 연속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초 가격 인상과 관세로 인한 상방 압력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음. 주거비는 자가주거비와 임대료가 모두 둔화되었으며, 임대료·자가주거비(OER)·항공료를 제외한 근원서비스 인플레이션은 0.39%로 2025년 평균(0.60%)을 하회했음. 이번 데이터에는 중기적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바꿀만한 요인은 없었음. 다만 PCE에서 CPI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진 전자제품이 큰 폭 상승하고, 더 낮은 가중치를 가진 중고차는 큰 폭 하락한 점을 반영해 1월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상향조정(0.30% → 0.40%)

- (JPM)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4%로 1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근원 CPI도 2.5%로 소폭 둔화되었음. 근원상품은 중고차 가격 하락(전월대비 -1.8%)으로 전월대비 거의 보합(0.04%)에 머물렀는데, 근원서비스는 주거비가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0.39%로 다소 견조하게 상승했음. 주거비 제외 서비스(Supercore)는 0.6%, 중고차 제외 근원상품은 0.4% 상승한 점은 근원 인플레이션에 기조적 경직성이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함. 서비스물가 강세는 항공료, 교육·통신(0.4%)에 주로 기인했으며 그 외의 서비스 항목 대부분은 매우 약했음. 항공료가 근원 CPI 상승률에 0.08%p 기여했는데, 이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대비 0.22%로 매우 약한 수준임
- (WFS) 1월 CPI 보고서는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왔음. 근원 CPI는 항공료의 큰 폭 상승이 중고차 하락 및 주거비 둔화로 상쇄되면서 전월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근원 CPI 상승률은 21.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연준의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 기대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
- (Bloomberg) 이번 CPI 데이터는 예상된 급등 우려를 깨고 비교적 온건한 수준을 기록했음.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전월대비 0.2%로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근원 CPI는 서비스물가 오름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품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시장예상치에 부합했음. 식료품 가격은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휘발유 가격이 1년만에 가장 큰 폭 하락하는 등 생계비 부담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음. 연초 가격조정이 이루어지는 1월 CPI가 이정도로 온건하게 나온 데는 어느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수개월간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
- (WSJ) 1월 CPI는 휘발유와 중고차 가격 하락에 힘입어 시장 예상보다 큰 폭 둔화되었으나, 가전제품 및 신차 등 관세민감품목의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했으며, 항공료,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물가가 광범위하게 상승함에 따라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1년만에 가장 빠른 수준이었음. 이번 CPI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했던 고용지표와 맞물려 미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였으나, 실업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물가상승이 다소 완만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보임. 연준은 물가압력이 완화되고 기업들이 관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몇 달 더 확인하고자 할 수 있음